

대학생의 색채 선택과 선호 코디네이션 스타일의 관련성

The Relevance Between the Preferring Color and Coordination Style from
Selecting the Undergraduate Students

한정아

서정대학 피부미용과 전임강사

Han, Chungah

Seojeong College University, Skin Care & Beauty Art Dept. Professor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방법 및 범위

2. 이론적 고찰

- 2.1. 관련 선행 연구논문 고찰
- 2.2. 색채이미지의 개념
- 2.3. 코디네이션 스타일별 색채 유형

3. 색채 선택과 선호 코디네이션 스타일의 관련성 실증적 연구

- 3.1. 일반적 특성
- 3.2. 선호 코디네이션 스타일
- 3.3. 색채 선택에 대한 개념적 구조
-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색채 선택의 차이 비교
- 3.5. 선호 스타일에 따른 선호 색채의 차이 비교

4.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색채는 감성과 심리적 공통의 정보를 상징하기도 하며, 개인의 환경이나 경험에 따라 사적인 정보를 지닌다. 개성의 시대에 자신을 표출하는 뷰티 및 패션 코디네이션 색채는 그 시대의 보편적인 유행과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여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뷰티와 패션에 분야에서 특히 스타일과 연관된 색채의 비중은 대단히 크고, 특히 시각에 호소하는 힘이 강하다. 또한 상품, 형식의 성격이나 유행, 이미지 등을 강하고 힘있게 효과적으로 표현가능하다. 색채는 성별, 연령별, 전공별, 선호 색채와 선호 스타일에 따라서 차별적인 인식과 접근이 다양하기에 안전성과 감성을 고려한 색채 선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색채 선택과 선호 코디네이션 스타일의 관련성에 관한 논문이다. 색채 선택의 요인 중 색채 활용도와 민감도로 구분되며, 색채 선택의 민감도가 높게 평가되었고, 성별 특성은 여성의 색채 선택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고, 연령에 따른 특성은 20세 이하의 색채 선택의 활용도가 높고, 전공계열에 따른 특성은 예체능 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학 계열이 가장 낮게 나타났

다. 선호하는 색채계열과 톤은 무채색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톤은 회색을 가미한 탁색 톤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외형적 스타일이 캐주얼, 모던한, 내추럴인 경우에는 무채색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외형적 스타일이 여성적인 경우에는 중성색계열, 남성적인 경우에는 한색계열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선호하는 여성 스타일이 캐주얼인 경우에는 난색과 중성색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제외한 모던한, 여성적, 로맨틱, 내추럴의 여성 스타일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무채색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선호하는 남성 스타일 역시 무채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색채선택, 색채와 스타일 선호도, 관련성

Abstract

Visual Image is revealed the expression of the color & coordination style is composed by the characteristic preferring color consideration of the modern various cultural environment, social, and economic impacts from the representing personality, conformity processes, and systems.

The new phenomenon related in visual trend such as color is caused by the changes in the propensity to consume various lifestyle and the increase in the sentimental elements. The choices are impact on the visual communication tool such as color and coordination style through the selecting preference colors and fashion style for the undergraduate students from the differences of age, gender, major, or preferring tastes. The Colors of personal image expression are the most effective visual factors for showing oneself and personality to communicate with style.

Color is the most powerful tools in showing the visual factors which are related to the personal image making and self-image expression The empirical study focused on differences of color & coordination style relevance application between color and style perception for the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This questionnaire presents preferring neutral color tone for necessary tools of useful color selection related many different styles which help to improve relevance color selection.

This thesis is designed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color selection through relevance the

color& tone compared to the color sensitivity and color application depending on the color and tone. It can be presented to analyze the color & tone's preference the recent and future technical style tendencies of related color planning beauty and fashion industry including domestic and global for the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as the main consumers. This thesis will provide various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of new color selection and style designs based on the important color and tone related to the likeness style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new visual trends.

Keywords

Color Selection, Preferring Color and Coordination Style, Relevance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색채는 상징, 연상 작용을 하며 색채 배색을 통해 색채, 형태, 텍스처의 순으로 사물을 인식한다고 밝혀져 있다. 색채는 과학에 기초하여 다양한 분야와 접목을 통해 상생의 스타일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색채는 시각적 인식을 통해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의상 구매동기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색채에 민감한 20대 대학생들 중심으로 색채 및 톤에 대한 색채 선택과 선호 코디네이션 스타일간의 관련성을 색채 활용과 색채 민감도에 따른 설문 연구를 통해, 20대의 선호 색채와 코디네이션 스타일과의 연관관계를 규명하여, 타겟 소비자의 정확한 니즈를 파악하여 알맞은 색채 선택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색채 선택의 당위성과 코디네이션 스타일 관련 확인을 통해 관련 색채디자인 개발 및 색채마케팅 분야의 체계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색채 선택과 선호 스타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0년 8월 30일부터 2010년 9월 20일까지 서울 및 경기권의 대학생 4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설문 응답이 부실하거나 회수하지 못한 20명을 제외한 433명에 대하여 최종분석을 실시하였다.

2) 측정 도구

본 설문 조사는 크게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선호 스타일, 색채 선택, 선호색채의 4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자료 분석

대학생의 색채 선택과 선호 스타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자의 외형적 스타일, 선호하는 여성 스타일, 선호하는 남성 스타일은 다중응답분석(Multiple Response)방법을 이용하였다. 색채 선택에 대한 개념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분석 후 각 문항은 Cronbach's Alpha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색채 선택의 차이와 선호 스타일에 따른 색채 선택의 차이, 선호하는 색상에 따른 색채 선택의 차이는 독립표본 t-test(Independent Samples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의 Duncan 사후 검정방법을 이용하여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일반적 특성과 선호스타일에 따른 선호하는 색상과 톤의 차이는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 Package는 SPSS 14.0을 이용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관련 선행연구 논문 고찰

다른 문화, 환경 또는 상황에 따라 색채의 감성은 다르게 인식되기에 일반적으로 보편성과 사용자의 니즈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감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1)

뷰티와 패션스타일과 연관된 색채의 비중은 대단히 크고, 특히 시각에 좌우되는 힘이 강하므로 색채는 상품, 양식, 형식의 성격이나 유행, 이미지 등을 쉽고 빠르게 인지될 수 있도록 표현가능하다. 하지만,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선호 색채에 대해 표준화와 정량화하여 정확하게 서로 소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20대를 대상으로 한 색채 및 스타일 관련 선행 연구 논문을 고찰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통계를 위해 선행 논문들을 구분지어 선호 색채와 코디네이션 스타일 선택에 있어 다양하게 대학생들에게 적용하여 통계조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하고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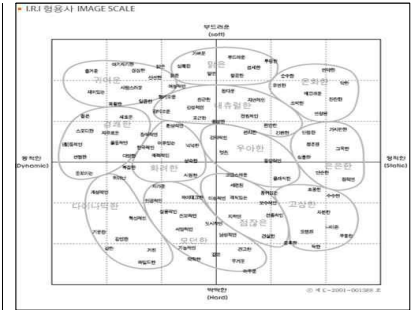
1) 패션 트렌드 연구소, "2009년 패션 색채 트렌드 기사", 2009.

<표 1> 색채 & 스타일 관련 선행 연구논문 고찰

구분	색채&스타일 관련 선행 연구논문 고찰
Ounsted&Taylor (1972) Halpern(1992)	여성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남성에 비해 더 높으며, 의사소통 능력이나 사회적 판단 능력도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유희(1995)	여성적이고 성숙한 스타일, 남성적이고 활동적인 스타일, 우아하고 도회적인 스타일, 독특하고 세시한 스타일, 수수하고 단순한 스타일의 여성복 유형시진으로 선호 스타일 선택
류숙희,류지은 (2001)	섹시, 매니쉬, 페미닌, 드러머틱, 일렉트릭스클래식, 캐주얼을 차용물을 제시하여 선호 스타일을 선택
박화순(2002)	개인색채유형을 따듯한 형, 차가운 형, 복합형으로 분류한 후 어울리는 의복 색을 제안
한명숙(2002)	피츠넨색채에 대한 헤어색채 선택 만족도 조사에서 10대, 20대, 30대 모두에서 피츠넨 색채에 의한 색채 선택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Baron-Cohen (2002, 2003)	남성과 여성간의 성차는 양성간의 공감하기 수준과 체계화하기 수준의 차이로 인해 나타남
최현옥,김혜리 (2010)	우리나라 대학생들 대상으로 반복 검증
김재숙,류지원 (2004)	헤어 색채가 남성 패션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기 위해 남성패션이미지 요인들을 편지적, 사교적, 역능적 요인으로 분류
손영미,이해정 (2005)	피츠넨색과 헤어색채의 조화에 관한 연구에서 피츠넨은 남성은 색채의 피부, 로즈베이지 색채의 피부, 아이보리 색채의 피부로 분류하였으며 브라운 색채피부에 어울리는 색채를 찾기 어려우므로 톤으로 구분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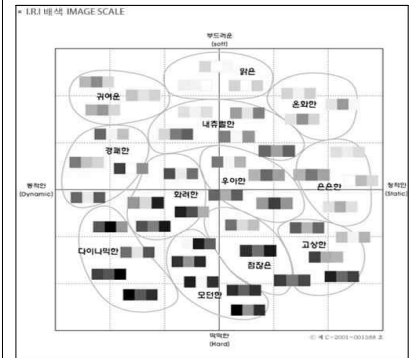
2.2. 색채 이미지 개념

색채는 이미지 언어로 구현되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다. 색채는 물리적 현상 뿐 아니라 심리적인 감정을 표현하기에 단색에서 보이는 색채 이미지보다 두 가지 이상의 색채가 배색되었을 때 조화와 차이를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미지 스케일은 언어에서 연상되는 색채의 느낌을 배색을 통해서 이미지 공간 안에 배열한 것이다. 아래의 이미지 스케일은 색의 이미지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두 개의 축으로 3색으로 배색되었을 때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부드럽다 - 딱딱하다, 동적인 - 정적인을 기준으로 교차되는 스케일의 기준을 잡는다. 부드럽다 - 딱딱하다 는 색의 3축성 중 명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부드럽다는 고명도, 딱딱하다는 저명도와 연관 있으며, 동적인 - 정적인은 채도와 관련 있다. 동적인 색채는 선명한 고채도의 색이 연상되며 정적인은 회색조의 차분한 저채도의 색이 연상된다.



<그림 1> IRI image scale <http://iricolor.com>

기준이 되는 이미지 스케일시스템 안에서 비슷한 느낌의 배색을 대표적 키워드로 분류하여 유사하거나 중요한 카테고리를 만들어 색채의 배색이 가진 특징을 알기 쉽게 전달한다. 각각의 단어는 유사하고 친밀한 연관 관계를 가지며, 거리가 가까울수록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거리가 멀수록 이미지의 차이가 커지면서 대조적이고 반대적인 이미지이다.



<그림 2> IRI color image scale
출처 <http://iricolo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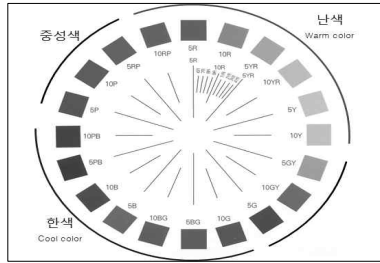
2.3. 코디네이션 스타일별 색채 유형

스타일(Style)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개인의 인간이나 사회와 민족등의 행동방식, 생활방식을 가리키고, 포괄적으로 문화를 포함하여 형성되는 방식을 의미한다.2) McJimsy는 패션에서의 스타일이란, 특정기간에 사용된 특정 실루엣, 소재 장식, 혹은 액세서리를 일컫는다고 하였다. 즉 의복스타일은 시각적 요소를

2) 도시오 다케우찌(1974), 미하·예술학 사전, 안영길외 6인 옮김.(1990), 서울: 미진사, p.291.

가미하고 구체적이고, 실제로도 묘사될 수 있는 것이다.

색채에서 느끼는 따뜻함과 차가움은 색상들은 온도감과 가장 관련이 깊다. 색상환에서의 색은 난색, 한색 그리고 따뜻하거나 차가움의 느낌 어느 쪽도 속하지 않는 중성색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난색은 따뜻함, 열정, 포근함의 이미지라면 한색은 어둡고, 차가움, 냉철한 이미지를 준다.



<그림 3> 색의 특성 중 온도감 출처 <http://iricolor.com>

난색 계열은 빨강과 주황, 노랑 주위의 색채로 주로 빨강 위주의 고명도, 고채도의 색의 경우 따뜻하게 느껴지고 무채색에서는 저명도의 색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흰색보다는 검정색이 따뜻하게 느껴지는데 모든 빛을 흡수하는 성질과 연관이 있다. 흥분을 주는 색은 난색 계통의 색으로서 명도와 채도를 높게 하면 흥분감을 주며, 자극을 주거나 강조를 할 때 주로 사용된다.

파랑 계통의 저명도 저채도의 색이 차갑게 느껴지며, 무채색에서는 고명도인 흰색이 더 차갑게 느껴진다. 진정색은 침정색이라고도 하며, 흥분상태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 색으로 한색 계통의 명도가 낮은 색을 들 수 있다. 기분이 안정되고, 편안한 느낌으로 피로를 풀 수 있다. 중성색은 연두, 녹색, 보라, 자주, 분홍 등의 색으로 주위에 난색이 있으면 따뜻하게 느껴지고, 한색 옆에 있으면 차갑게 느껴진다. 예를 들어 연두와 보라는 중성색으로, 보라와 빨강이 배색되었을 경우 빨강 옆의 보라는 상대적으로 차갑게 느껴지고 파랑과의 배색에서는 반대로 따뜻하게 느껴진다. 채도가 높은 색들의 대비에서는 색의 반발성을 막기 위해 주위에 중성색을 사용한다.

색채의 강하고 약함을 나타내는 강약감은 대부분 순도를 나타내는 채도에 의해서 좌우된다. 빨강과 파랑 등과 같은 원색은 강한 느낌을 주며, 회색이나 중성색은 약한 느낌을 주게 된다. 또한 같은 물체도

색채에 따라 강약감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색채 배색 시 강한 색과 약한 색을 적절히 혼용하게 되면 효과적인 배색이 된다.

톤(Tone)은 명도와 채도의 복합 개념으로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서로 배치시켜 발생하는 색채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배색은 기능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색채 조화가 최종 목적이 된다. 현재 컬러리스트 국가자격 시험에 쓰이는 한국의 120색 IRI의 11개 톤을 분류하였다.

[톤의 약화]	R	YR	Y	GY	G	BG	B	PB	P	RP	N
V-vivid(해맑은, 새듯한)	V										N9.5
S-strong(강한)	S										N9
B-bright(밝은)	B										N8
P-pale(연한)	P										N7
VP-very pale(매우연한)	Vo										N6
Lgr-light grayish(밝은 회)	Lgr										N5
L-light(밝은)	L										N4
Gr-grayish(회)	Gr										N3
DI-dark(적착한)	DI										N2
DP-deep(깊은)	Dp										N1.5
DK-dark(어두운)	Dk										N1

<그림 4> IRI Tone image scale 출처 <http://iricolor.com>

유아와 어린이 경우에는 자신들의 눈에 띄어 보이는 색, 즉 선호 색채에 관심을 갖는다. 그 결과 분홍, 노랑, 흰색, 주황, 빨강 등에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 성인이 되면서는 장파장의 색상보다 단파장의 색상인 청색계열의 색을 선호하게 된다. 남성 성인인 경우에는 파랑과 청록색을 가장 선호하며, 초록, 검정, 오렌지 순으로 기호도가 나타난다. 여성은 난색 계통인 주황, 중성색인 보라를 가장 선호하며, 빨강, 핑크, 자주색 등도 기호도가 높게 나타난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차분하고, 약한 색을 선호하지만 빨강, 초록과 같은 원색을 좋아하기도 한다.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갈수록 차분한 색을 선호하고 있다.

개인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개성이 돋보이는 외관을 표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색채의 선택에 따라 감성적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 개인의 이미지는 내적인 이미지(본질적 요소)와 외적인 이미지(현상적 요소)로 나누어 가능할 수 있다. 반면에 외적인 이미지는 우리가 타인을 지각할 때 사용하는 단서로 신체적 특성, 체격, 얼굴 모습, 의복, 화장, 액세서리, 건강상태, 체취 등은 포함한다.3)

<표 1> 색채 & 스타일 유형

3) 조슬기, 외적이미지를 리드하는 여성들의 외모관리 행동 연구, 성신여자 대학교 조형 대학원.6. 2006.

캐 주 일 (Casual) 색채 & 스타일	자유로운 분위기로, 평상복 치림의 스타일로 화려하고 활력적이며, 밝고 선명한 청색 조 외에 적황, 황록, 보라 등의 색조가 중심
페 미 닌 (Feminine) 색채 & 스타일	'여성다움'의 언어로 우아한 분위기를 가진 이미지, 연할수록 우아하며, 톤 중에서는 패일 (pale)톤이 가장 적합
내 추 일 (Natural) 색채 & 스타일	자연스럽고 친근감 스타일로 베이지, 아이보리 등 난색계열을 중심으로 소박하고 편안한 색이 주를 이루며, 브라운, 그린 톤의 자연색조
모 단 (Modern) 색채 & 스타일	흰색, 검정, 회색계나 차가운 색을 기조로, 색 대비와 명암 대비가 강한 배색이 선호
매 니 쉬 (Mannish) 색채 & 스타일	남성적인 요소가 가미된 이미지 색채는 어두운 톤이 중심이 되는데, 회색, 녹색, 짙은 갈색, 올리브그린 등 탁색계가 주조 배색으로 차분한 분위기
포 멀 (Formal) 색채 & 스타일	장식을 배제하고 유행을 타지 않는 정통과 스타일, 정식의, 격조 높게 검정이 가장 고급스럽고, 무채색으로 고급스러운 정장의 이미지
심 플 (Simple) & 클 리 어 (Clear) 색채 & 스타일	순결하고 간결하며, 맑고 깨끗한 인상을 주기에 같은 채도라도 따뜻한 느낌을 주는 난색계열 보다는 차가운 느낌의 한색계열
고 저 스 (Gorgeous) 색채 & 스타일	화려하고 멋스럽게 호화스럽다는 이미지, 선명하고 채도가 높은 색으로 악센트 코드처럼 화려함과 고전적이며 전통적인 것이 적절히 조화된 스타일
로 맨 틱 (Romantic) 색채 & 스타일	부드러운 분위기의 가장 사랑스러운 여성의 이미지로, 귀여운 아름다움을 강조하여 원색보다는 은은하고 부드러운 분홍색과 흰색이 주를 이루며, 원색보다는 파스텔 톤
다 이 나 믹 (Dynamic) 색채 & 스타일	동적이고 활력적인 이미지로 밝고 가벼운 분위기의 선명한 색으로, 역동적이며 강한 스타일 연출, 주로 스포츠와 동적인 느낌의 배색을 사용하고, 대조 배색 가능

특히 외적 이미지와 스타일은 대인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로 각 개인의 인상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알버트 메라비언(Albert Mehrabian)교수는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청각적인 이미지나 시각적인 이미지라고 자신의 실험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또한 사회학자 메긴슨(L.C. Megginson)은 인상의 결정 요소로써 외모가 87% 목소리는 13%를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4)

3. 대학생의 색채 선택과 선호 스타일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색채 선택과 선호

4) 이유진의 3인, "20대 여대생들의 라이프스타일 별 유행색 (09-10 F/W)선호도에 대한 연구", 한국디자인 문화학회지, p.311, 2009.

스타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 203명(46.9%), 남성 230명(53.1%), 연령은 20세 이하 189명(43.6%), 21세 이상 244명(56.4%), 전공별로는 인문사회과학 92명(21.0%), 자연과학 35명(8.1%), 공학 158명(36.5%), 상경 50명(11.5%), 예체능 74명(17.1%), 기타 25명(5.8%)으로 공학 전공(계열)의 참여가 가장 많았다<표 3>.

<표 3>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n	%
성별	여성	203	46.9
	남성	230	53.1
연령	20세이하	189	43.6
	21세이상	244	56.4
전공 (계열)	인문사회	91	21.0
	자연과학	35	8.1
	공학	158	36.5
	상경	50	11.5
	예체능	74	17.1
	기타	25	5.8
Total		433	100.0

3.2. 선호 코디네이션 스타일

연구 대상자의 평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 스타일에 대한 다중응답 분석 결과 캐주얼 256명(43.1%), 내추럴 141명(23.7%), 모던한 85명(14.3%)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여성의 스타일은 여성적 182명(39.3%), 모던한 90명(19.4%), 내추럴 60명(12.7%) 순으로 여성적 스타일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망하는 남성 스타일은 심플한 197명(43.4%), 모던한 92명(20.3%), 캐주얼 56명(12.3%)순으로 깔끔한 스타일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선호 스타일

선호 스타일		n	% ¹⁾
외형적 스타일	캐주얼	256	43.1
	내추럴	141	23.7
	모던한	85	14.3
	여성적	49	8.2
	남성적	24	4.0
	로맨틱	16	2.7
	정장의	13	2.2
	화려한	6	1.0
	기타	4	0.7
Total		594	100.0

선호 여성 스타일	여성적	182	39.31	
	모던한	90	19.44	
	내추럴	60	12.96	
	캐주얼	52	11.23	
	로맨틱	46	9.94	
	화려한	15	3.24	
	정장의	8	1.73	
선호 남성 스타일	기타	7	1.51	
	남성적	3	0.65	
	Total	463	100.0	
	선호 여성 스타일	심플한	197	43.39
		모던한	92	20.26
		캐주얼	56	12.33
		정장의	38	8.37
남성적		36	7.93	
내추럴		24	5.29	
기타		4	0.88	
선호 남성 스타일	힙합의	4	0.88	
	화려한	3	0.66	
	Total	454	100.0	

¹⁾ Multiple Response

3.3. 색채 선택에 대한 개념적 구조

1) 색채 선택에 대한 개념적 구조

색채 선택에 대한 문항을 축약하기 위해 <표 5>과 같이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9문항이 2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요인의 구성 문항과 분산은 다음과 같다.

요인 1은 '나는 나의 피부색 및 파운데이션 색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나는 화장을 한다.', '나는 아침마다 매우 신경 써서 코디와 메이크업을 한다.', '신체에 사용되는 부분별 색명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선호색과 화장품의 색조색이 일치한다.'의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문항에 대하여 요인 1은 '색채 선택의 활용도'로 명명하였으며, 총 분산은 34.067%를 설명하였다.

요인 2는 '나는 신체에 활용되는 색 선택에 있어 계절색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나는 제품 구매 시 색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유행색에 민감하다.', '나는 신체에 활용되는 색 선택에 있어 다양한 선택을 한다.'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문항에 대하여 요인 2는 '색채 선택의 민감도'로 명명하였으며, 총 분산은 25.334%를 설명하였다.

최종적으로 색채 선택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통한 주성분분석 결과 2개 요인의 총 분산은 59.411%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요인의 구성 문항에 대하여 Cronbach's Alpha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1의 '색채 선택의 활용도'는 0.814, 요인 2의 '색채 선택의

민감도'는 0.602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표 5> 색채 선택에 대한 개념적 구조

문항	요인 적재량	고유값	분산 (누적분산)	Cronbach's Alpha ¹⁾²⁾
● 요인 1: 색채 선택의 활용도				
나는 나의 피부색 및 파운데이션 색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0.88	3.066	34.067 (34.067)	0.814
나는 화장을 한다.	0.82			
나는 아침마다 매우 신경 써서 코디와 메이크업을 한다.	0.69			
신체에 사용되는 부분별 색명을 잘 알고 있다.	0.69			
나는 선호색과 화장품의 색조색이 일치한다.	0.59			
● 요인 2: 색채 선택의 민감도				
나는 신체에 활용되는 색 선택에 있어 계절색 영향을 많이 받는다.	0.76	2.281	25.344 (59.411)	0.602
나는 제품 구매 시 색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0.70			
나는 유행색에 민감하다.	0.68			
나는 신체에 활용되는 색채 선택에 있어 다양한 선택을 한다.	0.67			

¹⁾ Factor Analysis

²⁾ Reliability Analysis

2) 색채 선택에 대한 요인 평가

색채 선택의 2개의 요인에 대한 비교 결과 요인 1의 '색채 선택의 활용도'는 2.23점, 요인 2의 '색채 선택의 민감도'는 2.78점으로 '색채 선택의 민감도'가 높게 평가되었다<표 6>.

<표 6> 색채 선택에 대한 요인 평가

색채 선택에 대한 요인 평가	Mean±SD
색채 선택의 활용도	2.23±0.92
색채 선택의 민감도	2.78±0.90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색채 선택의 차이 비교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색채 선택의 활용도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색채 선택의 활용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 특성 중 여성 2.81점, 남성 1.72점으로 여성의 색채 선택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으며($t=15.296, p<0.001$), 연령에 따른 특성은 20세 이하 2.41점, 21세 이상 2.09점으로 20세 이하의 색채 선택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으며($t=3.630, p<0.001$). 전공(계열)에 따른 특성은 예체능이 2.6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학 1.8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전공(계열)에 따라 색채 선택의 활용도에 차이를 보였다($F=15.045, P<0.001$)<표 7>.

<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색채 선택의 활용도 차이

일반적 특성	n	Mean±SD	t/F ¹⁾²⁾³⁾
성별	여성	203	2.81±0.76
	남성	230	1.72±0.72
연령	20세이하	189	2.41±0.94
	21세이상	244	2.09±0.88
전공 (계열)	인문사회	91	2.59±0.80 ^a
	자연과학	35	2.12±0.92 ^b
	공학	158	1.84±0.73 ^b
	상경	50	2.06±0.84 ^b
	예체능	74	2.69±1.01 ^a
	기타	25	2.45±1.13 ^a

¹⁾ Independent Samples t-test

²⁾ One-Way ANOVA, a>b: 유의하게 다른 집단의 표시(Duncan의 사후 검정)

³⁾ ***p<0.00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색채 선택의 민감도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색채 선택의 민감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 특성 중 여성 2.98점, 남성 2.61점으로 여성의 색채 선택의 민감도가 높게 나타났으며($t=4.540, p<0.001$), 연령에 따른 특성은 20세 이하 2.82점, 21세 이상 2.76점으로 20세 이하의 색채 선택의 민감도가 높게 나타났으며($t=0.722$). 전공(계열)에 따른 특성은 인문사회가 3.0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연과학과 상경계열이 2.6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전공(계열)에 따라 색채 선택의 민감도에 차이를 보였다($F=2.790, P<0.05$)<표 8>.

<표 8>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색채 선택의 민감도 차이

일반적 특성	n	Mean±SD	t/F ¹⁾²⁾³⁾	
성별	여성	203	2.98±0.69	
	남성	230	2.61±1.01	4.540***
연령	20세이하	189	2.82±0.90	0.722

	21세이상	244	2.76±0.89	
전공 (계열)	인문사회	91	3.01±0.69 ^a	2.790*
	자연과학	35	2.61±0.93 ^b	
	공학	158	2.67±0.95 ^{ab}	
	상경	50	2.61±0.91 ^b	
	예체능	74	2.89±0.94 ^{ab}	
	기타	25	2.93±0.83 ^{ab}	

¹⁾ Independent Samples t-test

²⁾ One-Way ANOVA, a>b: 유의하게 다른 집단의 표시(Duncan의 사후 검정)

³⁾ *p<0.05, **p<0.01

3.5. 선호 스타일에 따른 색채 선택의 차이 비교

1) 본인 외형적 스타일에 따른 색채 선택의 차이

연구 대상자의 평소 외형적 스타일의 1순위를 대상으로 색채 선택에 대한 차이를 비교한 결과, 색채 선택의 활용도는 평소 외형적 스타일이 여성적인 경우에 3.23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내추럴인 경우에 2.06점으로 낮게 평가 되었다($F=22.879, P<0.001$)

색채 선택의 민감도는 여성적인 경우에 3.19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내추럴인 경우에 2.79점 순으로 낮게 평가되어 평소 외형적 스타일에 따른 색채 선택의 차이를 보였다($F=21.324, P<0.001$)<표 9>.

<표 9> 본인 외형적 스타일에 따른 색채 선택의 차이

외형적 스타일	n	Mean±SD	F ¹⁾²⁾
색채 선택의 활용도	캐주얼	254	2.21±0.78 ^b
	모던한	47	2.50±0.87 ^b
	여성적	34	3.23±0.44 ^a
	내추럴	57	2.06±0.71 ^b
	남성적	10	2.23±0.56 ^b
색채 선택의 민감도	기타	31	1.12±1.41 ^c
	캐주얼	254	2.84±0.70 ^b
	모던한	47	3.03±0.86 ^b
	여성적	34	3.19±0.58 ^b
	내추럴	57	2.79±0.62 ^a
	남성적	10	3.03±0.69 ^b
	기타	31	1.40±1.65 ^b

¹⁾ One-Way ANOVA, a>b: 유의하게 다른 집단의 표시(Duncan의 사후 검정)

²⁾ **p<0.01

2) 선호 여성 스타일에 따른 색채 선택의 차이

연구 대상자가 선호하는 여성 스타일의 1순위를 대상으로 색채 선택에 대한 차이를 비교한 결과, 색

채 선택의 활용도는 모던한의 경우 2.56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캐주얼의 경우 2.13점으로 낮게 평가 되어 차이를 보였다(F=12.353, P<0.001)

색채 선택의 민감도는 모던한의 경우 3.11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내추럴의 경우 2.81점으로 낮게 평가되어 선호하는 여성 스타일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F=21.476, P<0.001)<표 10>.

<표 10> 선호 여성 스타일에 따른 색채 선택의 차이

외형적 스타일		n	Mean±SD	F ¹⁾²⁾
색채 선택의 활용도	캐주얼	52	2.13±0.78 ^{ab}	12.353***
	모던한	87	2.56±0.73 ^a	
	여성적	167	2.29±0.82 ^{ab}	
	로맨틱	34	2.35±0.84 ^{ab}	
	내추럴	48	2.24±0.78 ^{ab}	
	기타	45	1.35±1.33 ^b	
색채 선택의 민감도	캐주얼	52	2.84±0.62 ^{ab}	21.476***
	모던한	87	3.11±0.67 ^a	
	여성적	167	2.86±0.71 ^{ab}	
	로맨틱	34	2.97±0.76 ^{ab}	
	내추럴	48	2.81±0.58 ^{ab}	
	기타	45	1.64±1.52 ^b	

¹⁾ One-Way ANOVA, a>b: 유의하게 다른 집단의 표시(Duncan의 사후 검정)

²⁾ ***p<0.001

3) 선호 남성 스타일에 따른 색채 선택의 차이

연구 대상자가 선호하는 남성 스타일의 1순위를 대상으로 색채 선택에 대한 차이를 비교한 결과, 색채 선택의 활용도는 평소 선호하는 남성 스타일이 모던한 2.46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정장의 2.20점으로 낮게 평가 되었다(F=14.352, P<0.001)

색채 선택의 민감도는 모던한 3.05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정장의 2.88점으로 낮게 평가되어 선호하는 남성 스타일에 따른 색채 선택의 차이를 보였다(F=21.472, P<0.001)<표 11>.

<표 11> 선호 남성 스타일에 따른 색채 선택의 차이

외형적 스타일		n	Mean±SD	F ¹⁾²⁾
색채 선택의 활용도	캐주얼	56	2.31±0.91 ^a	14.352***
	모던한	88	2.46±0.89 ^a	
	깔끔한	175	2.37±0.77 ^a	
	남성적	27	2.28±0.81 ^a	
	정장의	26	2.20±0.65 ^a	

		기타	61	1.68±1.06 ^b	
색채 선택의 민감도	캐주얼	56	2.89±0.69 ^a	21.472***	
	모던한	88	3.05±0.69 ^a		
	깔끔한	175	2.91±0.66 ^a		
	남성적	27	3.01±0.69 ^a		
	정장의	26	2.88±0.74 ^a		
	기타	61	1.80±1.33 ^b		

¹⁾ One-Way ANOVA, a>b: 유의하게 다른 집단의 표시(Duncan의 사후 검정)

²⁾ ***p<0.001

3.6. 선호하는 색채와 톤

1) 선호하는 색채와 톤

연구 대상자가 선호하는 색상(계열)과 톤을 살펴본 결과 색상은 난색 72명(16.6%), 중성색 89명(20.6%), 한색류 114명(26.3%), 무채색류 158명(36.5%)로 무채색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톤은 원색톤 91명(21.02%), 명칭색톤 138명(31.9%), 탁색톤 142명*32.8%), 암칭색톤 62명(14.3%)로 탁색톤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표 12> 선호하는 색상과 톤

선호하는 색상과 톤		n	%
색상 (계열)	난색	72	16.6
	중성색	89	20.6
	한색	114	26.3
	무채색	158	36.5
톤	원색톤(V,S)	91	21.0
	명칭색톤(B,P,St,Vp)	138	31.9
	탁색톤(Lgr,L,Gr)	142	32.8
	암칭색톤(Dl,Dp,Dk,Dgr)	62	14.3
Total		433	100.0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선호 색상과 톤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선호하는 색상과 톤에 대하여 성별 특성은 남성과 여성 모두 무채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반대로 여성은 난색, 남성은 난색과 중성색의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13.966$, P<0.01).

연령별로는 20세 이하와 21세 이상 모두 무채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반대로 난색의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chi^2=3.440$).

전공별로는 예체능은 중성색의 선호도가 24명(32.

4%)로 가장 높았으며,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상경과 기타 전공의 경우 무채색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전공별로 선호도에 차이를 보였다($\chi^2=20.307$, P<0.001).

<표 1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선호 색상과 톤의 차이

일반적 특성	최고색 (계열)				Total	χ^2 (df)	
	난색	중성색	한색	무채색			
성별	여성	38(1 8.7)	55(2 7.1)	49(2 4.1)	61(3 0.0)	203(10 0.0)	13.966 (3)
	남성	34(1 4.8)	34(1 4.8)	65(2 8.3)	97(4 2.2)	230(10 0.0)	
연령	20세 이하	32(1 6.9)	39(2 0.6)	42(2 2.2)	76(4 0.2)	189(10 0.0)	3.440 (3)
	21세 이상	40(1 6.4)	50(2 0.5)	72(2 9.5)	82(3 3.6)	244(10 0.0)	
전공	인문 사회	15(1 6.5)	24(2 6.4)	21(2 3.1)	31(3 4.1)	91(100 .0)	20.307 (15)
	자연 과학	3(8. 6)	8(22. 9)	6(17. 1)	18(5 1.4)	35(100 .0)	
	공학	29(1 8.4)	19(1 2.0)	53(3 3.5)	57(3 6.1)	158(10 0.0)	
	상경	7(14 .0)	10(2 0.0)	13(2 6.0)	20(4 0.0)	50(100 .0)	
	예체 능	15(2 0.3)	24(3 2.4)	17(2 3.0)	18(2 4.3)	74(100 .0)	
	기타	3(12 .0)	4(16. 0)	4(16. 0)	14(5 6.0)	25(100 .0)	
	Total	72(1 6.6)	89(2 0.6)	114(26.3)	158(36.5)	433(10 0.0)	

¹⁾ Chi-square Test

²⁾ *p<0.05, **p<0.01

3) 선호스타일에 따른 선호 색상과 톤의 차이

선호스타일에 따른 색상과 톤의 선호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인의 외형적 스타일이 캐주얼, 모던한, 내추럴인 경우에는 무채색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외형적 스타일이 여성적인 경우에는 중성색 16명(47.1%), 남성적인 경우에는 한색 5명(50.0%)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32.363$, P<0.01).

선호하는 여성 스타일이 캐주얼인 경우에는 난색과 중성색의 선호도가 각각 15명(28.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제외한 모던한, 여성적, 로맨틱, 내추럴의 여성 스타일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무채색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chi^2=18.325$).

선호하는 남성 스타일은 무채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26.433$, P<0.05).

<표 14> 선호스타일에 따른 선호 색상과 톤의 차이

선호스타일		최고색				Total	χ^2 (df)
		난색	중성색	한색	무채색		
평소 선호하는 외형적 모습	캐주얼	48(1 8.9)	52(2 0.5)	70(2 7.6)	84(3 3.1)	254(100 .0)	32.363* (15)
	모던한	7(14 .9)	6(12 .8)	9(19 .1)	25(5 3.2)	47(10 0.0)	
	여성적	3(8. 8)	16(4 7.1)	8(23 .5)	7(20 .6)	34(10 0.0)	
	내추럴	8(14 .0)	9(15 .8)	12(2 1.1)	28(4 9.1)	57(10 0.0)	
	남성적	-	2(20 .0)	5(50 .0)	3(30 .0)	10(10 0.0)	
	기타	6(19 .4)	4(12 .3)	10(3 2.3)	11(3 5.5)	31(10 0.0)	
선호하는 여성 스타일	캐주얼	15(2 8.8)	15(2 8.8)	10(1 9.2)	12(2 3.1)	52(10 0.0)	18.325 (15)
	모던한	16(1 8.4)	13(1 4.9)	24(2 7.6)	34(3 9.1)	87(10 0.0)	
	여성적	26(1 5.6)	31(1 8.6)	44(2 6.3)	66(3 9.5)	167(100 .0)	
	로맨틱	6(17 .6)	10(2 9.4)	7(20 .6)	11(3 2.4)	34(10 0.0)	
	내추럴	5(10 .4)	11(2 2.9)	14(2 9.2)	18(3 7.5)	48(10 0.0)	
	기타	4(8. 9)	9(20 .0)	15(3 3.3)	17(3 7.8)	45(10 0.0)	
선호하는 남성 스타일	캐주얼	13(2 3.2)	14(2 5.0)	10(1 7.9)	19(3 3.9)	56(10 0.0)	26.433* (15)
	모던한	19(2 1.6)	9(10 .2)	22(2 5.0)	38(4 3.2)	88(10 0.0)	
	깔끔	25(1 4.3)	49(2 8.0)	42(2 4.0)	59(3 3.7)	175(100 .0)	

일	한					
	남성적	3(11.1)	6(22.2)	9(33.3)	9(33.3)	27(100.0)
	정장의	3(11.5)	3(11.5)	7(26.9)	13(50.0)	26(100.0)
	기타	9(14.8)	8(13.1)	24(39.3)	20(32.8)	61(100.0)
Total	72(16.6)	89(20.6)	114(26.3)	158(36.5)	433(100.0)	

¹⁾ Chi-square Test

²⁾ *p<0.05, **p<0.01

4. 결론

본 연구는 색채 선택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통한 주성분분석 결과 2개 요인의 총 분산 59.411%으로, 각 요인의 구성 문항에 대하여 Cronbach's Alpha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색채 선택의 활용도'와 요인 '색채 선택의 민감도' 신뢰도를 확보하여 색채와 코디네이션 스타일의 긴밀하게 관련지어 조사되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색채 선택과 선호 스타일의 관련성에서 색채 선택의 요인 중 색채 선택의 민감도가 높게 평가되었고, 성별 특성은 여성의 색채 선택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고, 연령에 따른 특성은 20세 이하의 색채 선택의 활용도가 높고, 전공(계열)에 따른 특성은 예체능 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학 계열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선호하는 색채(계열)과 톤은 무채색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톤은 회색을 가미한 탁색톤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외형적 코디네이션 스타일이 캐주얼, 모던한, 내추럴인 선택 경우에는 무채색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외형적 스타일이 여성적인 경우에는 중성색 계열, 남성적인 경우에는 한색계열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선호하는 색상과 톤에 대하여 성별 특성은 남성과 여성 모두 무채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반대로 여성은 난색, 남성은 난색과 중성색의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여성 코디네이션 스타일이 캐주얼인 경우에는 난색과 중성색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제외한 모던한, 여성적, 로맨틱, 내추럴의 여성 스타일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무채색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선호하는 남성 코디네이션 스타일 역시 무채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조사 결과 20대 중 대학생만을 제한적으로 조사한 결과로 일반화할 수 없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나, 연관된 뷰티 및 패션 분야에서 색채계획 및 색채 활용에 실질적인 연구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색채와 개인 성격 및 성향에 대한 연관된 스타일의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참고문헌

-도교상공회의소/색채 코디네이터 검정시험 2급, 서울: 주) 휴앤즈 15, 2006.

-김구자.(2006). 한국 남성의 얼굴유형에 어울리는 색채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2(5), 325.

-김재숙, 류지원.(2004). 헤어 길이와 헤어 색채가 남성의 패션 이미지에 미치는 상호 작용 효과. 한국의류학회지, 28(9/10), 45

-도시오 다케우찌.(1974). '미학·예술학 사전'. 안영길 외 6인 옮김.(1990). 서울: 미진사, 291.

-류숙희, 류지은.(2001). 첫인상 형성 상황에서의 이상적 여성상과 의복스타일 선호도. 한국의류학회지, 25(4), p.820.

-박희순.(2002). 개인색채 유형에 따라 어울리는 의복 색 경향. 한국복식학회지,52(6), 18.

-손영미,이혜정.(2005). 헤어메이크업 디자인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7(6),658-659.

-유희.(1995). 소비자의 가치의식과 의류제품 평가. 서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34-35.

-윤지성.(2000). 헤어색채에 따른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명희,송원영.(2006). 여성의 헤어스타일과 헤어 색채가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4(6), 954.

-이유진의 3인.(2009). 20대 여대생들의 라이프스타일 별 유행색(09-10 F/W)선호도에 대한 연구, 한국디자인 문화학회지, 311.

-이은지.(2002). 모발색이 체형 및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혜정, 손영미.(2005). 헤어 메이크업 디자인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62.

-조슬기.(2006). 외적이미지를 리드하는 여성들의 외모 관리 행동 연구, 성신여자 대학교 조형 대학원:6.

-한명숙.(2002). 퍼스널 색채에 대한 선택 요인 및 만족도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4), 375.

-권영걸.'색채와 디자인 비즈니스', 도서출판 국제, 108. 2004.

-김진한. '색채의 원리', 서울:시공사, 2002.

-이수철의 4인.'색과 생활',서울:정문각, 40,43, 2007.

-McJimsy.H.T. (1973).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 Ames: The Iowa State University, 43-44

-Ounsted.C.&Taylor. D.(1972). Gender Differences: Their ontogeny and significance, Churchill, Livin stone

-Hapern.D.(1992). Sex Differences in Cognitive Ability. Hillsdale, NJ: Laurence Learlbbaum Association,24 .129-154.

-Baron-Cohen. S. Wheel wright.S. Skinner.F. Martin. J.& Clubey, E. (2001b). The Martin, J.,& Clubey, E.

(2001b).The autism-spectrum quotient(AQ): Evidence from asperger syndrome/high-functioning autism. males and females, scientists and mathematician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31. 5-17.

-Faber Birren.(1963). 'Color For Interior -Historical and Modern' Whitney Library of design, New York.

-http://iricolor.com (2010.11.1)